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법공양 페이지

못난사람 예전 내 모습인줄 알아야

스님 법문 대하면 눈물나

현대불교신문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독자입니다. 작년부터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나 경을 읽을때 까닭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전엔 현대불교신문의 법공양 페이지가 대쪽 늘어난 것을 대면하는 순간 그만 '학학' 소리를 낼 정도로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같은 느낌에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에 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 있으니 자기 자신이 알아서 행할 일입니다. 요는 행을 하되 진실하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하듯이 그렇게 제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제 뿌리를 믿어야 바르게 계합이 되는 도리도 알 것입니다.

자세히 되돌아 보십시오. 이 몸뚱이가 움직여가는 거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작용은 어떻게요?

그 또한 워낙 많아서 육체도 그렇고 마음작용도 그렇고 어느 때를 꼭 집어서 이것이 나다, 내 마음이다, 내 몸뚱이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도



그림 · 최주현

다 놓아야 그 뜻이 허용됩니다. 그러니 제 몸 안의 수많은 생명체부터 한마음으로 조복해서 몸이 아닌 줄을, 스스로 체함을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체는 공하여 내가 없고 한다 안한다는 그런 것조차 없어야 지구를 구하든 말든 그 뜻이 허용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뚱이 이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였다, 혼자 산다 이러겠습니까? 모두가 더불어서 같이 한동체 속에서 잘해도 같이 잘하고 잘못해도 같이 잘못된 거니까 해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을 해야지 혼자가 어디 있고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체의 의식이 하나로 뭉쳐야 해결을 해도 그냥 되는 것이지 내가 동떨어져서 한 생각을 한다 해서 되는게 아니지요.

자기 몸뚱이를 놓고 한번 착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뚱이가 위성이기도 하고 블랙홀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를 터득하면 다 터득이 됩니다.

지만 현재 속에 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삼이고 한데 합쳐서 삼보입니다. 삼보에 귀의한다 하는 것도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삼보를 공경하고 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삼보가 있으니까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지요.

보시액 적어 마음 무거워

살림이 넉넉치 못해서 남들이 보시를 할 때에도 저는 빼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게 될 경우라도 남부고려온 금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갈 때에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에 발걸이 무겁습니다. 빛만 지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자들이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한 푼이 되었던 두푼이 되었던 정말로 뜻깊고 마음 깊숙한 정성으로 시주하시는 데 대해 감사할 뿐이지요. 불자들이 더불어 이 공부를 배우자고 그렇게 애쓰시는 걸 보면 참으로 불자 여러분들께서 본래부터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사시는데 얽매어서 겁쟁이였을 뿐이지, 먼지가 끼었을 뿐이지 본래 부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푼을 내시더라도 새 돈으로 골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자기 부처님한테 자기가 성실히 산다는 것을 표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만약에 중들이 잘못 마음을 먹고 거저 생기는 줄 알고 잘못써서 된다면 또 한세상을 검검하게 살테니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하겠지요.

시주하는게 바로 제 스레기를 쓰레기 차에 실어 보내는 것과 같은데 말입니다. '길을 묻는...' 늘어난 이유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 난을 즐겨 읽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편집자 나름의 의도가 있었지만 많이 읽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경전말씀을 좀처럼 인용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지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옛날 부처님 말씀 그대로의 방편

18면으로 계속

“몸뚱이도 혼자가 아닙니다 둘이 아닌 도리 체험해야 해결을 해도 그냥 되지...”

불자들이 중에는 그렇게 까닭모를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과거의 내가 회개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 우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또한 거울을 보고 질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울 속의 내가 거울 밖의 나를 보고 거울 밖의 내가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거기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거울 속의 나는 내 육체의 환상이지요? 그리고 거울 밖의 나 또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회하여 나를 뵈지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평등공평이란 말입니다.

한마음 없는데 한마음이요, 부처님도 부처님 아닌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느게 옳으나 그르나 하고 따지는 마음보다 제 뿌리를 굳게 믿고 맡기는 진실한 행이 중요합니다. 그게 참선이지요.

‘돌아난 도리’로 사는 길

제 체험담입니다. 제 집 보일러가 노후된 탓인지 모처럼 작동하려 하니 심하게 소음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철규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길래 저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고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들었는데 보일러는 아주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날 냉창고 문을 여는데 물이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해 '주인공 이것 또한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했는데 그후부터는 열 적마다 물이 쪼개졌습니다. 스님! 죽어야 너를 보리라 하셨는데 제가 돌 돌아 돌아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이지요?

잘된다 안된다 하는 그 생각조차도 굴러서 나온 자리에 되 놓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되게 하는 것도, 잘못되게 하는 것도 너이니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돌려서 놓고 잘 안되는 것은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고 돌려 놓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진리의 끈으로 연결 “익을수록 숙여야...푸를땐 꽃도 열매도 없어”

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출가’를 고민중입니다

모든 걸 돌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과 속가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쉽게 정리가 되질 않아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믿고 맡기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 도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24시간 행주 좌와가 그대로 참선이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입산이다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에 앞서 가정생활 속에서 주인공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하신 분이려면 또 모르겠습

니다만 결혼을 하신 분이려면 가정생활을 버리고 입산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십니까? 내 육신의 집도 집이지만 가정의 짐을 누구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겠습니까? 생활속에 도가 있으니 그 속에서 당신의 주인공부터 발견하십시오.

환경오염 · 인륜파괴 심해

이 민족과 지구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과 인륜의 파괴가 극심합니다.

이 말법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내 탓이다 하고 참회한들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고 안되고를

이승 저승 어떻게 다릅니까

스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갈리고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초심자로서 이렇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과 저승을...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고 현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승과 이승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만 낮에 일을 할 수 있듯이 밤낮이 한데 합쳐져야만 생과 사도 같이 구르지요? 이게 진리의 끈입니다.

방금 전에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벌써 과거가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요? 먹었으니까 과거는 없어졌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6

막대한 재산가인데 지출을 염려하라.

“마음의 근본은 원자력의 자기발전소라 할 수 있다. 아니, 태양보다 더한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로 응도에 따라서 무한으로 쓸 수 있다.

빛으로 쓰려면 빛으로 나가고 능력으로 쓰려면 능력으로 나간다. 누구에게나 그런 원력이 주어져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의 법이기에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존다해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스스로 마음을 개발해서 자기의 근본과 계합이 된다면 날은 미사일도 떨어뜨릴 그런 무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재로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우왕좌왕하게 된다.

한알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보라. 무엇이 있어서 그런 엄청난 오묘한 일을 해내는가? 육안으로는 알아 볼 수도 없는 세포 하나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라. 누가 있어서 그토록 기적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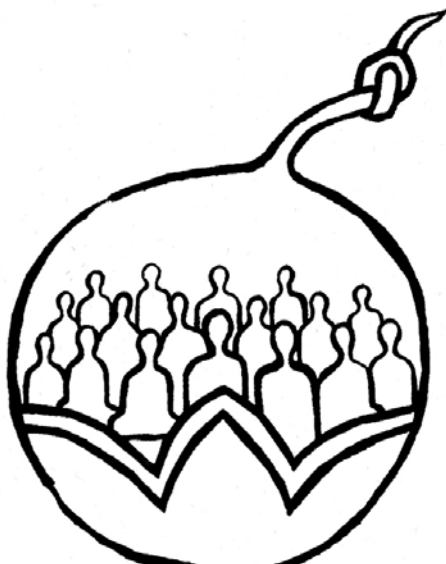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이 태양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어떤 주재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의 근본 불성은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향, 어머니의 자궁같은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왔고 그것에 의해 만들어졌다. 고로 그 이름은 절로 웃음이 여겨지는 그런 이름이요 우리 모두가 마침내는 귀의해야만 할 유일한 '절대'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있다. 그 '절대'와 내가 맺줄로 이어져 있음을 모르고 산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애를 쓴다.

모든 생명을 낳게 했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그것-불성을 외면하고 우왕좌왕 구경행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남보다 더 뛰어난 행동력, 더 명석한 지적능력, 남다른 건강을 원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남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런 것이 있어야 고통과 불행은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먹고 마시



는 일을 통해서 공금을 받는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남보다 더 먹어야 하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공적이기 위해 더 먹어야 하는가. 아니다. 육체적인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쓰는 만큼 보충해야 하고 일정 시간을 쓰거나면 누구라도 쉬어야 한다.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은 능력을 바라겠는가.

마음의 힘은 무한대이다. 내 마음이 근본자리와 맺줄로 이어지지만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꺼내 쓸 수 있다. 거기엔 한계도 없다. 아무리 꺼내셔도 줄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보다 더 뛰어나기를, 어제보다 더 성공적이기를 바란다. 자기에 이미 주어져 있는 무한의 잠재력을 외면하면서 성공하고픈 욕심만을 앞세운다.

성공하고 싶거든 마음의 힘을 꺼내 써라.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나의 자기발전기를 돌려라. 가령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의 힘이 심분의 일 품이라면 풀 가동은 했을 때는 지금보다 열 배나 큰 힘을 내지 않았는가.

무한의 힘을 꺼내 쓰려면 먼저 마음이 순수해져야 한다. 단순해져야 한다. 복잡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방황, 결과에 대한 초조감 따위는 마음의 근본 자리로 향하는 길을 방해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로지 순수하고 단순해질 때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레 마음의 근본자리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순수하고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나의 자기발전소는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무한의 힘을 방출해 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일의 성공을 낳는 힘은 지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순수하고 단순해질 수 없다. 순수와 단순이 아니면 마음의 잠재된 힘을 꺼내 쓸 수 없다.

막대한 재산가는 지출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 썼을 쓰고 열이 보충될 수 있다면 아무도 쓰임새를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막대한 재산가이다. 왜 지출을 걱정하고 실재를 염려하라.

협찬: 이 장 옥